

교양영어교육에 관한 학생 요구 조사: 보건 계열 특성화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희 · 장형지 · 김현진

(을지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Seong, Myeong-Hee, Chang, Hyung-Ji, & Kim, Hyun Jin. (2007). Needs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e general English curriculum develop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8(3), 318-340.

This study aims to find out university students' needs to develop the general English (GE) curriculum on the basis of students' needs. 845 students taking GE courses at one college, which is renowned for the departments of health and is divided into health and non-health major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needs were characterized by proficiency-based and ESP-oriented curriculum.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health and the non-health majors in their needs in terms of the language of instruction, class hours of the week, and the English proficiency certification test for graduation, with the first two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some considerations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were mentioned.

Keywords: [needs/curriculum/general English/ESP/요구/교육과정/교양영어/특수목적영어]

1. 서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양영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기대 수준보다 낮으며,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 개인이 노력하여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실제 의사소통능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 1998).

또한 재학생들이 교양영어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중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을 대학에서 이수하는 동안, 학습 의욕이나 동기가 저하되며 전공 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가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장국, 김현진, 강규한, 심경석(2006)은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은 이전보다 더 강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더 강도 높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을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전의 교양영어교육은 많은 대학들이 비교적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왔다. 대학마다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위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일반 사설 어학원에서 영어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파행적 현상을 보였다(박준언, 1997). 그러나 최근 들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 및 학생들의 필요를 교양영어교육에 반영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 내에 들어서면서 대학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특성화', 학부제, 복수전공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개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해오고 있다(김현진, 이종복, 윤재홍, 2006; 서장국 등, 2006). 즉 대학의 특성화 및 전공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가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 및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여 대학 및 전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학교와 학생의 조건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 있는 교양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영어교육에도 목적/목표와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도출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개발의 효율적 적용 모형을 도출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양영어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의 전공 계열에 따른 요구 조사 성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보건 계열 전공이 특성화 되어 있는 대학에서 두드러진 계열적 특성 성향이 학생들의 교양영어에 대한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2.1 선행 연구: 수준별 교육과 ESP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를 통해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공통된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체로 한 대학의 특정 단과 대학 학생들 또는 특정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구분석(needs analysis)을 하거나 특정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김현진(2005)과 서장국 등(2006)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들은 교양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연구로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1997)에 의하면, 장기적인 문제점으로는 표현 위주의 교육보다 주입식 교육이 우선시되며 총체적인 부실 교육으로 인하여 교양영어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단기적인 문제점으로는 강독중심의 전달식 영어교육, 1,2학년에만 편중된 교과목, 다양한 실용영어 과목의 부족과 같은 교과과정상의 문제점, 영어담당교수의 비전문성, 독립적인 기관 부재, 이중언어(bilingual) 교수의 부족, 적절한 교재의 부족 등과 같은 교육면에서의 문제점, 소규모 학급운영의 어려움, 멀티미디어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의 재정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은 교양영어 교육의 개정 방향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과정상의 개선책으로, 새로운 목표의 설정, 새로운 평가제도의 확립, 1,2학년 중심에서 3,4학년으로의 확대, 실용적인 영어 과목 개설, 소규모 학급 편성을 들고 있으며, 교양영어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립을 위한 개선책으로, 전담 기구 및 전담 교수요원 확보, 원어민 교수의 채용 확대, 자매교와의 적극적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영어실력 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육내용에 실용성을 강조하여 실습과목 위주, 네 기능 통합, 팀티칭 과목 개발, 전공교과와 실용교과와의 접목, 교과과정 편성에 교양영어 필수과목의 축소, 교양영어 선택과목의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김동욱, 정대수, 장순열, 엄철주, 1999). 특히 영어 교과목의 확대 개설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었다(서초순, 1990; 정동수, 김해동, 2001; 조세경 등, 1997; 조정순, 2002).

여러 개정 방향 중의 하나로 수준별 교육 방안이 제안되었다. 학생들 간의 지닌 실력의 차이는 학급 목표 설정 및 평가,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학급의 운영 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해지므로 능력별 반편성이 필요하며(조세경 등, 1997), 수준별 교육을 통해 집단 내 동질성 확보

로 학습동기 유발,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교재 선택의 폭 확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다양한 평가 방식 선택 가능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조정순, 2002).

수준별 교육 방안과 더불어 개정 방향 중의 하나로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가 제안되었다(김현진, 2005; 서장국 등, 2006; 서초순, 1990). 점차 실용적인 영어사용능력이 요구되고 학생들의 주관심사가 취업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영어능력개발을 위한 대학영어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어왔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비중 있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전공의 경쟁력 즉 그 전공을 졸업한 뒤 좋은 직장을 얻는데 그 전공이 얼마나 유망한가이며, 전공을 선택한 뒤 그 전공을 계속 수 학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장차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그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연마할 수 있느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영어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영어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다양한 현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영어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학 영어 프로그램은 ESP를 지향하게 된다.

이전의 교양영어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개선 방향으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는 능력별 반 편성 즉 수준별 교육(조세경 등, 1997; 조정순, 2002)과 ESP(김현진, 2005; 서장국 등, 2006; 서초순, 1990)가 제안되어 왔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설문 연구(김현진, 2005)에서 지역 대학의 교양영어교육은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살리고 취약점을 보충하는 '특별한' 또는 '대학 특유'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격 및 목표가 지금까지 '교양적인 측면'과 '도구 및 실용적 측면'의 비율을 비슷하게 또는 전자에 더 비중을 두어 '일반목적'의 영어(EGP, English for General Purposes)로 운영되어왔다면, 학습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교양영어 교육과정은 후자에 더 비중을 두어 취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 'ESP'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선행연구들이 지적해왔던 교양영어교육의 문제점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과 대학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점차 많은 대학들이 강독중심의 교과목에서 실용중심적인 교과목으로 전환하고 있고, 교양영어 전담 기구를 구축하고 전담 교수 인력을 확보하

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과 기자재에도 전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이 그 대학 소속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2.2 ESP의 정의와 교양 영어에서의 ESP의 역할

대학에서의 교양영어교육 목표는 대개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s)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EGP가 특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용이 광범위하여 TENOR(Teaching English for Non-obvious Reasons(김현진, 성명희, 2006; Tongue, 1994)를 지향하는 반면, ESP는 학습자의 장차 직장과 관련되어 목적이 구체적이고 취업의 필요성에 절실하게 연계되어 있다(Hutchinson & Waters, 1987). 교양영어교육의 목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요구이고, 최근의 교양영어 실태 조사를 보면, 교양영어 교육이 학습자의 전공과 진로에 연관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김동욱 등 1999; 김현진, 성명희, 2006; 정동수, 김해동, 2001; 조정순, 2002). 최근 일부의 대학들이 기본적인 영어 능력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강독 및 회화 중심의 영어 수업을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TOEIC 과목으로 대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들이 EGP 위주의 교양영어 교육에서 ESP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OEIC 교과만으로 학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정확한 ESP의 정의를 살펴보고, 교양영어에서의 ESP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영어 프로그램인 EGP와 차별되는 ES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Sifakis, 2003). 우선,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의사소통능력의 개발과 특정 직업 분야의 지식 및 기술 함양, 이 두 가지이며, 교육기관, 교사, 학습자가 일종의 계약 관계에 놓이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협력관계 안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어 주어진 교육 기간 안에 학습자가 목표로 한 교육내용을 반드시 성취하고 졸업하도록 운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능력이 연속선상에서 축적되도록 학습과정이 운영된다. 이와 같이 ESP에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영어 학습 자체가 영어 학습의 주요 목적인 EGP 학습자들과는 달리 ESP 학

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 예를 들어 승무원, 관광통역사, 의사, 영어 교사 등의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영어를 학습한다(Richards, 2001). 그러므로 ESP 개발에서는 학습자가 영어를 어떤 목적으로 배우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도 영어의 언어학적 분석이 아니라 학습자 및 현장의 요구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며,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에 맞도록 즉 교육과정을 마친 뒤 특정 직업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GP와 ESP가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적인 단계는 동일하지만 ESP의 경우 요구분석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김현진, 성명희,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S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분야의 영어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수업을 제공해준다. 최근의 대학 교양영어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은 학생들의 계열이나 전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교양영어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ESP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ESP를 지향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준에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대학의 교양영어에 ESP를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후 전공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전공영어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 대상 대학의 교양영어교육

연구 대상인 E대학은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중소규모의 대학으로 대부분의 학과가 간호 전공, 임상 전공, 물리치료 전공, 방사 전공 등의 보건 계열과 일부 관광경영 전공, 유통경영 전공 등 비보건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 계열은 비보건 계열에 비해 졸업 후 진로분야가 대동소이하고 같은 분야로 취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 대학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 대상 대학이 전문대학 당시에 운영되었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초창기에 대학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통일 없이 학과별로 교양영어 담당 강사들의 편의에 의해 대개 강독이나 독해 위주로 운영되어왔다. 1990년대에 들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교양영어

과목을 실용영어와 TOEIC 중심으로 학교 차원에서 통일하여 실용영어 초급 수준의 영어I, 실용영어 중급수준의 영어II, TOEIC, 영문법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졸업의 기준으로 영어I, 영어II 중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화시켰다.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한 첫 해에는 학과 교수진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언어의 4기능 습득을 목표로 한 대학영어I, 대학영어II, 그리고 영어회화 능숙도 향상을 목표로 한 영어회화I, 영어회화II를 개설하였다. 학교차원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외국어분야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전문대 교양영어과정이 강독·독해의 교육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용영어로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면, 2007년도에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학과 교수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영어전공자가 아닌 교수들에 의하여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학급수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전공과목 개설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교양과목의 개발에 대한 제안이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학교차원에서는 4년제 대학의 첫해를 맞이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염려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의 폭이 극히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기존의 보건 계열 전문대학생과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들이 계열 구분 없이 같은 교양영어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전문대 시기의 교양영어과정과 4년제 시기의 교양영어과정의 교과목 개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교과목에서 TOEIC 등의 시험 대비를 위한 내용과 영문법 과목이 삭제되고, 기본적으로 영어I, 영어II 두 과목이 대학영어I, 대학영어II, 영어회화I, 영어회화II 등의 네 과목으로 세분화되며 교과목이 변경되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E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로분야가 제한적이고 분명한 보건 계열 학생들과 진로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비보건 계열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당 대학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해당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해당 학생들은 계열별로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가?

표 1
E대학의 교양영어 개설과목 개요 비교

대학	과목명	과목의 개요
전문대	영어I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실용영어 듣기·말하기 연습을 위주로 하며, 문화를 배우기 위한 읽기 연습과 간단한 쓰기 연습이 포함된다.
	영어II	영어I에서 계속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실용영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연습을 위주로 하며, TOEIC, TOEFL, TEPS 문제 유형을 알고 연습문제를 풀어보기가 포함된다.
	TOEIC	TOEIC 시험 대비 청취, 문법, 독해력 함양 및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과목으로 TOEIC 점수 향상과 실용문 청취 및 독해, 실용대화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영문법	각 분야별 체계적인 영문법 연습을 위주로 하며 영문법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대상이다.
4년제	대학영어I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듣기·말하기에 중점을 두면서 회화를 위한 영문법, 기초적인 어휘구사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대학영어II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 뿐 아니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회화I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용영어 듣기·말하기 연습을 위주로 하며 초급수준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영어회화II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며 중급수준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학습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7년 1학기에 교양영어를 수강중인 1학년 재학생 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보건 계열 학생은 640명, 비보건 계열 학생은 215명이었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의 설문도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0문항의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1) 교양영어의 목표, 2) 교양영어 교과목 내용, 3) 희망 개설 과목, 4) 중점적인 언어 기능, 5)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 6) 교수자의 수업 용어, 7) 교양영어의 적절한 학습 기간, 8) 현재 수업 시수에 대한 만족도, 9)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10) 영어졸업 인증제 도입에 대한 것이었다(부록 참조). 이렇게 개발된 설문을 2007년도 1학기 말에 교양영어 수업 시간에 배포하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통계처리를 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4.1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해당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학생들의 반응 결과를 얻었고 이를 표 2~1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2
교양영어 목표

	전공원서 독해	실생활 회화	영미문화 및 교양	고등학교 영어 보완	취업영어
(n=845)	27	470	61	56	231
	3.20%	55.62%	7.22%	6.63%	27.34%

표 3
교양영어 교과목 내용

	실용회화	TOEIC	독해	문법	4기능통합
(n=415)	284	49	13	18	51
	68.43%	11.81%	3.13%	4.34%	12.29%

표 4
희망 개설 과목

	회화	TOEIC	원서독해	스크린영어	4기능통합
(n=840)	198	117	13	8	45
	23.57%	13.93%	1.55%	0.95%	5.36%

표 5
증점적인 언어 기능

	4기능 모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n=832)	504	24	46	3	6
	60.58%	29.33%	5.53%	3.85%	0.72%

표 6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

	토론대화	발표참여	시청각	게임	실생활대화
(n=478)	147	178	75	52	26
	30.75%	37.24%	15.69%	10.88%	5.44%

표 7
교수자의 수업 용어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공용
(n=898)	189	15	694
	21.05%	1.67%	77.28%

표 8
적절한 학습 기간

	1학년까지	2학년까지	3학년까지	4학년까지
(n=852)	88	323	133	308
	10.33%	37.91%	15.61%	36.15%

표 9
현행 수업 시수(주당 3시간)에 대한 만족도

	적합	부족 어학원과 병행	부족 해외연수
(n=821)	414	321	86
	50.43%	39.10%	10.48%

표 10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찬성	반대
(n=815)	455	396
	53.47%	46.53%

표 11
영어졸업 인증제 도입

	찬성	반대
(n=854)	525	329
	61.48%	38.52%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들은 실생활 회화 능력과 취업영어 학습을 교양영어의 목표로 희망하며(표 2), 교과 내용으로서 실용회화와 TOEIC을 희망하고(표 3), 이들 교과가 개설되기를 기대한다(표 4). 말하기를 포함하여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표 5) 이를 위해

발표 참여식 수업과 토론 대화식 수업을 선호한다(표 6). 교수자가 영어와 우리말을 공용하는 수업을 선호한다(표 7). 교양영어를 2학년까지 배우고자 하는 비율과 4학년까지 배우고자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많고(표 8), 현행 주당 3시간의 수업이 적당하다는 학생들이 과반수이지만 현행 주당 시수가 부족하여 어학원과 병행하는 것을 바라는 학생들의 비율도 낮지 않다(표 9).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찬성의 비율이 반대의 비율보다 약간 높으며(표 10), 졸업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의 비율이 반대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은 취업과 실제 자신의 언어 능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양영어교육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교육의 목표, 내용, 수업 방법 등에 골고루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4학년까지 배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동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성이 50%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현행 교양영어 수업이 자신의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하며 자신의 능력에 더 잘 맞고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고자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졸업 인증제의 찬성이 높은 것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목표가 그만큼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영어를 배우고자 한다.

4.2 계열별 학생 인식 차이 조사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해당 학생들은 계열별로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학생들의 응답이 계열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준별로 수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현재 영어수준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 이외에 계열에 따라 이들을 구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을 계열별로 비교해보았다. 결과는 표 12~21에 제시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교양영어의 목표에 대해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 모두 실생활회화, 취업영어, 영미문화, 통합기능, 전공원서독해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비보건 계열보다 보건 계열이 전공원서독해, 취업영어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두 계열 모두 취업영어를 목표로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영어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교양영어의 목표

	전공원서독해	실생활 회화	영미문화 및 교양	고등학교 영어 보완	취업영어
보건 (n= 630)	24 3.81%	350 55.56%	40 6.35%	40 6.35%	176 27.94%
비보건 (n=215)	3 1.40%	120 55.81%	21 9.77%	16 7.44%	55 25.58%

표 13에서 보듯이, 희망하는 교양영어 교과목 내용에 대해, 보건 계열 학생들은 실용회화, 4기능 연습, TOEIC, 문법, 독해 순으로 응답하였고, 비보건 계열 학생들은 실용회화, TOEIC, 4기능 연습, 독해, 문법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실용영어 회화를 가장 선호하였다.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두 계열 학생들 모두 회화, TOEIC, 4기능 연습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회화과목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15에서 보듯이, 중점적으로 기르고 싶은 언어 기능에 대해서도 두 계열 모두, 4기능을 골고루 개발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말하기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 가지 항목을 종합해보면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에서 모두 향후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 항목 모두 계열 간의 응답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응답은, 표 16에서 보듯이, 두 계열 모두 발표참여, 토론대화,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수업,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수동적인 수업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원하며, 이는 표 13~15에서 나타난 회화를 포함한 실용영어능력의 개발을 희망하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수업 운영방식도 토론대화나 발표 참여와 같이 학생 스스로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표 13
교양영어 교과목 내용

	실용회화	TOEIC	독해	문법	4기능통합
보건 (n=309)	208 67.31%	37 11.97%	7 2.27%	16 5.18%	41 13.27%
비보건 (n=106)	76 71.70%	12 11.32%	6 5.66%	2 1.89%	10 9.43%

표 14
희망 개설 과목

	회화	TOEIC	원서독해	스크린영어	4기능통합
보건 (n=627)	147 23.44%	87 13.88%	10 1.59%	6 0.96%	31 4.94%
비보건 (n=213)	51 23.94%	30 14.08%	3 1.41%	2 0.94%	14 6.57%

표 15
중점적인 언어 기능

	4기능 모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보건 (n=619)	368 59.45%	184 29.73%	36 5.82	26 4.20%	5 0.81%
비보건 (n=213)	136 63.85%	60 28.17%	10 4.69%	6 2.82%	1 0.47%

표 16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

	토론대화	발표참여	시청각	게임	실생활대화
보건 (n=345)	111 32.17%	134 38.84%	48 13.91%	35 10.14%	17 4.93%
비보건 (n=133)	36 27.07%	44 33.08%	27 20.30%	17 12.78 %	9 6.77%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수업용어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17과 같다.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 학생들 모두 우리말 영어 공용, 영어사용, 우리말 사용 순으로 응답하여 선호도 순위는 같았으나 수업용어 각각에 대한 응답 비율은 두 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말과 영어의 공용을 선호하는 비율은 비보건 계열이 더 높았으나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수는 보건 계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계열의 경우 전공 및 진로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 비보건 계열 학생들이 보건 계열 학생들보다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비보건 계열 학생들이 보건 계열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교수자의 수업 용어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공용
보건 (n=635)	147* 23.15%	11* 1.73%	477* 75.12%
비보건 (n=263)	42* 15.97%	4* 1.52%	217* 82.51%

$$\chi^2(2, N=898) = 5.9, p < .05$$

다음으로 교양영어의 적절한 학습 시기(표 18)에 대해서, 보건 계열 학생들은 2학년까지, 4학년까지, 3학년까지, 1학년까지 순으로 응답하였고 비보건 계열 학생들은 4학년까지, 2학년까지, 3학년까지, 1학년까지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어수업에 대해 4학년까지 수업 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2학년까지 원하는 비율과 유사하게 높은 것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3,4학년 전공과목의 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수업 시수(주당 3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표 19에서 보듯이, 두 계열 모두 만족한다. 부족하며 어학원과 병행해야 한다, 부족하며 어학연수와 병행해야 한다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두 계열 모두 과반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현행의 3시간에 만족을 하고 있으나 또한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반대로 어학원 수업이나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학 공부 주당 3시간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전공 과목의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수업 시수에 대한 두 계열 간의 선호도 패턴은 유사하나 구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보건 계열보다 비보건 계열이 주당 3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건

표 18
적절한 학습 기간

	1학년까지	2학년까지	3학년까지	4학년까지
보건	67	250	94	226
(n=637)	10.52%	39.25%	14.76%	35.48%
비보건	21	73	39	82
(n=215)	9.77%	33.95%	18.14%	38.14%

표 19
현행 수업 시수(주당 3시간)에 대한 만족도

	적합	부족 어학원과 병행	부족 해외연수
보건	304*	246*	85*
(n=635)	47.87%	38.74%	13.39%
비보건	110*	75*	1*
(n=186)	59.14%	40.32%	0.54%

$$\chi^2(2, N=821) = 26.4, p < .00$$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3시간이 적합하지 않으며 해외연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표 18에 나타난 결과와 종합해보면, 보건 계열 학생들의 경우 정규교과로서의 교양영어수업을 4학년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행 주당 3시간이 부족하니 시수를 더 늘리거나 어학원 수업을 받거나 해외연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교양영어수업을 2학년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두거나 영어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현행 3시간이 교양영어 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비보건 계열 학생들의 경우, 4학년까지 정규 교양영어수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행 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어학원 수업과 병행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현행 시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보건 계열 학생들의 경우, 표 18에서는 3학년까지 수업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반대로 표 19와 같이 3시간 시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은 영어 실력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주당 3시간 이상으로 시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교양영어 수업 부담의 증가와 전공 수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찬성하지 않지만, 2학년까지 영어를 학습해도 영어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3학년 그리고 4학년까지 기간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0과 표 21에서 보듯이,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과 영어졸업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두 계열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며, 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과 비교했을 때,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인증제 도입에 대해 찬반에 대한 차이가 더 뚜렷하다. 이것은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평균적인 영어능숙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 같다.

표 20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찬성	반대
보건 (n=635)	346 54.49%	289 45.51%
비보건 (n=216)	109 50.46%	107 49.54%

표 21
영어졸업 인증제 도입

	찬성	반대
보건 (n=637)	401 62.95%	236 37.05%
비보건 (n=217)	124 57.14%	93 42.86%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에 대해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인식에는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두 가지 항목에서 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수업 용어에 대한 선호도에서, 비보건 계열이 보건 계열보다 수업용어로서 우리말-영어 공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고,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수업용어로서 영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보건 계열의 평균 영어능숙도가 더 높거나 전공 및 진로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영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보건

계열보다 비보건 계열이 주당 3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준별 수업과 졸업인증제에 대해서는,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다. 이것도 두 계열 간에 존재하는 평균 영어 능숙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문제 1의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실용영어, 취업영어, 수준별 수업을 요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문제 2의 결과로부터 전체적인 패턴은 유사하나 계열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계열의 특징을 반영하여 계열별 특징을 살리는 영어를 가르쳐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김현진, 2005; 서장국 등, 2006)에서 제기된 수준별 교육과 전공과 진로를 고려한 교양영어교육의 필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보건 계열 특성화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학의 효율적인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해당 대학 학생들의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당 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행 교양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의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김현진, 2005; 서장국 등, 2006)에서 제안하였던 교양영어교육의 개발 방향을 계열별 특성이 강하고 전공과 향후 직무 수행에서 실제적인 영어능력이 요구되는 한 대학의 사례를 통하여 본격적인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해당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연구 문제 1에 대해, 학생들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양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의 목표, 내용, 수업 방법 등에 이 목적이 고르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3,4학년까지 교양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동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성이 50%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현행 수업이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

다 자신의 능력에 맞고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고자하는 요구로 해석된다. 졸업 인증제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자신의 영어 학습 목표가 그만큼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고 자신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양영어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 2에 대해, 대체로 모든 항목에 대해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인식에는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두 가지 항목에서 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수업 용어에 대한 선호도에서,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수업용어로서 영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비보건 계열이 보건 계열보다 수업용어로서 우리말-영어 공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보건 계열의 평균 영어능숙도가 더 높고 전공 및 진로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영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보건 계열보다 비보건 계열이 주당 3시간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도 마찬가지로 보건 계열 학생들이 대체로 영어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자신감도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정규 교양영어 수업을 벗어나 좀 더 도전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준별 수업과 졸업인증제에 대해서,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 간의 평균 영어 능숙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건과 비보건 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많지는 않았으나,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로부터 두 계열을 구분하여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 계열이 진로분야가 제한적이고 분명한 반면에 비보건 계열이 진로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계열별 진로에 따른 교양영어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두 계열 간의 차이를 고려할 뿐 만 아니라, 비보건 계열의 경우는 보건 계열의 경우보다 동일 계열 내에서 더 세분화된 교양영어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열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이 적었던 것은 설문 문항이 일반적인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계열별 특징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주제, 어휘, 의사소통기능 등,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이들의 요구를 조

사했다라면 더욱 분명한 차이를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다.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들어,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대학 교육의 환경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각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개혁 및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노력을 실행해왔다. 교양영어교육도 그 중의 하나로 많은 대학들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갖춘 강의실 확보, 전담기구 마련, 전담 인력 확보, 교과목 개편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 이를 운영할 교수자의 훈련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제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면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내용 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육내용(교과목의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과 수업을 실행하는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목의 이름이 변경되고, 이수학점 및 시수가 확대되고, 강의실 환경이 개선되고 전담 교수 요원이 확보되어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우게 되는 수업의 내용과 수업이 실행되는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학별로 구체적인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대상 대학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본 결과, 수준별 그리고 전공별 영어교육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교육과정 개발 방향으로 삼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김현진과 성명희(2006)에서 주장하듯이, 이러한 전공별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DACUM(Developing a Curriculum)법과 같이 해당 전공 분야의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핵심요소인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공별 교육내용과 교과목의 개발을 후속연구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ESP를 전공에서 학습하는 대학의 경우, 교양영어교육이 ESP를 지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양영어와 전공영어를 연계하는 효과적인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해당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확인하고 그 당위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욱, 정대수, 장순열, 엄철주. (1999). 산업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영어교육과정 모형개발. *영어교육*, 54(1), 253-296.
- 김현진. (2005). 지방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가 설문 연구: 텔파이 설문을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4), 317-341.
- 김현진, 성명희. (2006). 현장 친화적 ESP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연구. *영어영문학 연구*, 48(1), 85-104.
- 김현진, 이종복, 윤재홍. (2006).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형 ESP 교육과정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50(2), 151-175.
-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 (1998). 실용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3(2), 179-201.
- 박준언. (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 결과 분석. *영어교육*, 52(1), 161-183.
- 서장국, 김현진, 강규한, 심경석. (2006). 지방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2(1), 85-108.
- 서초순. (1990). 대학영어교육을 위한 ESP 교과 설계. *응용언어학*, 3, 85-108.
- 정동수, 김해동. (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대학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 방안. *영어교육*, 52(4), 303-3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 Hutchinson, T., & Waters, A. (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learning centered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fakis, N. C. (2003). Applying the adult education framework to ESP curriculum development: An integrative model.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2(2), 195-211.
- Tongue, R. (1994).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t primary level: The search for content*. In C. Brumfit, J. Moon, & R. Tongue (Eds.),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London: Nelson.

부 록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

이 설문은 더 나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열 () 학과 () 이름 ()

1. 교양영어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교양영어는 전공원서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교양영어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기능과목이므로 회화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3) 교양영어는 교양과목으로 영미문화의 이해와 교양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교양영어는 고등학교까지의 영어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정 과목으로 기본적인 영어기능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5) TOEIC, 회의영어, 영문서 작성 등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영어 교과목 내용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교양영어로서 가장 개설되기를 원하는 수업은 어떤 것입니까?
4. 어떤 언어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4기능 모두 (2) 말하기 (3) 듣기 (4) 읽기 (5) 쓰기
5.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으로서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이란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교양영어의 적절한 학습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1학년까지 (2) 2학년까지 (3) 3학년까지 (4) 4학년까지
7. 교양영어의 수업 시간에 교수의 영어 사용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영어로만 사용 (2) 우리말로만 사용 (3)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사용
8.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주당 3시간 교양영어 수업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1) 적합하다.
- (2) 부족하며 어학원 등의 수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 (3) 부족하며 어학연수가 필요하다.

9.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반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그렇지 않다.

10. TOEIC, TOFEL 등 공인시험의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영어졸업 인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필요하다.
- (2) 필요하지 않다.

성명희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461-713)
031) 740-7255
seong@eulji.ac.kr

장형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번지 (712-702)
053) 859-4561
maria5576@cu.ac.kr

김현진
청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남로 330 (361-712)
043) 299-0822
hjkim37@cje.ac.kr

논문접수일자: 2007.10.15

게재확정일자: 2007.12.1